

고향의 봄, 그 동산에 올라

— 「난파노래비」를 찾아서 —

나 운영

예나 지금이나 작품을 쓰는 사람들은 소위 「영감」이라는 것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게 마련이다. 즉 작품이란 기계적으로 아무 때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잉태한 다음 달이 차야만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영감이란 그리 쉽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니 나의 경우는 — 작곡을 하려면 우선 테마나 모티브가 떠올라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산책을 한다거나 여행을 해서 생활환경을 바꿔야만 영감이 떠오를 때가 많다. 그런데 말이 여행이지 직장에 매인 몸이라 아무 때나 여행을 떠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니 자연히 서울 근교를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마련이다.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에 내려서 팔달공원을 물으면 어린이들도 잘 가리켜 준다. 즉 시민회관을 끼고 조금만 걸어가면 「난파 노래비」가 보이는데 노래비 자체는 그다지 크거나 멋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초라한 것이지만 그래도 홍난파 선생의 얼굴과 「고향의 봄」의 악보가 새겨져 있어 그런대로 그의 업적을 기리게 되는데 이 노래비가 서 있는 주위라던가 이곳까지 찾아가는 길목이 매우 아름답기만 하다. 수원은 옛 도읍이라 성으로 둘러싸였고 문도 많고 깨끗하여 관광할 곳이 많지만 난파 선생의 「봉숭아»,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고향의 봄」 등 주옥같은 노래를 애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가 볼 만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생각된다.

난파 선생은 무덤이 없다. 1941년 여름 세상을 떠난 선생은 「내가 죽거든 연미복을 입혀서 화장을 해 달라」고 유언하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 노래비를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빈에 가면 중앙묘지에 베토벤의 무덤 옆에 슈베르트가 묻혀 있는데 만약 홍난파 선생의 묘가 있었다면 슈베르트를 본받아 나도 그의 옆에 묻히기를 유언하고 싶은 심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수원에는 이 밖에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에 난파 선생의 옛 집터에 「유허비」가 있지만 너무 멀어 잘 갈 수 없는데 서울 시내에도 난파 선생의 유적지가 있다.

인왕산이 바라보이는 — 지금 중앙기상대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세모꼴의, 빨간색 벽돌의 아담한 2층 양옥이 보이는데 이 집이 바로 선생이 재혼 살림을 꾸렸었고, 이곳에서 주옥같은 작품을 쓰다가 조국 광복을 보지도 못한 채 43세에 요절한 곳이기도 하니 홍파동 집 주변을 맴돌며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을 것이다.

금년은 선생의 탄신 90주년이 된다. 바로 4월 10일이 탄신일이니 새봄이 돌아올 때마다 「봉숭아」와 함께 나의 영원한 스승 홍난파 선생의 「노래비」와 「홍파동 집」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격월간잡지 「문화예술」, 1988. 3,4월호>